



## 국무총리, 호남 선교 상징지에서 부활절 예배 참석

- 호남선교뿌리로 여겨지는 유진벨 선교사 설립 광주 양림교회 부활절 예배 참석
- 지역사회에 ‘희망’과 ‘통합’의 메시지를 확산·실천해온 교계의 헌신에 감사 표해

□ 김민석 국무총리는 4월 5일(일) 오전, 광주 양림교회(광주광역시 남구)에서 부활절 예배에 참석하고 종교계 관계자 및 시민과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.

- 이번 방문은 ‘나눔’과 ‘생명지킴’, ‘통합’의 메시지를 확산하고, 지역사회와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되었다.
- 광주 양림교회는 미국의 유진벨 선교사\*가 1904년 성탄절에 설립한 호남 기독교의 발상지로서 역사적 상징성이 깊은 곳이다.

\* 유진벨(Eugene Bell, 한국이름 배유지) 선교사 : 1904년 광주 양림교회를 설립하고 제중병원(現 광주기독교병원) 등 의료선교, 송일학교·수피아여학교 등 근대교육 확산, 일제강점기 항일운동 지원 등 지역사회에 헌신·나눔의 메시지를 전파하였고, 교단을 초월해 존경을 받으며 ‘통합’의 상징으로 여겨지고 있음

□ 김 총리는 교회 관계자 및 시민들과 만나 인사를 나누며, 어려운 시기마다 나눔과 봉사로 지역사회를 지켜온 종교계의 헌신에 감사를 표했다.

- 일제강점기에 광주에서 시작된 복음과 교육·의료의 씨앗이 호남 전역으로 퍼지고, 우리나라가 문화·경제의 선진국으로 발전하는 바탕이 된 것을 언급하며,
- 위기와 고난 가운데 더욱 빛나는 사랑으로 지역사회와 국민의 통합, 상생, 발전에 힘써주신 교계에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.
- 정부도 종교계와 함께 국민의 삶과 마음까지 구석구석 살피고 보듬어 당면한 위기를 극복하고 따뜻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.

담당 부서	국무총리비서실	책임자	과 장	김홍수 (044-200-2698)
	소통총괄비서관실	담당자	서기관	류준호 (044-200-2699)

